올 산지유통종합평가 전국 1·2위

임실조공법인·부안 천년의솜씨 조공법인 등 도내 9곳 우수조직 선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올해 실시한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도내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우수조직을 휩쓸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 관내 총 13개 조공법인 중 9개 조공법인이 전국 순위 20위 안에 들어 우수조직을 휩쓸었다. 임실조공법인(대표 엄귀섭)과 부안천년의솜씨조공법인(대표 이중석)은 전국 1, 2위를 차지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다른 도내 조공법인들도 무주 6위, 김제 9위, 순창 10위, 고창 12위, 익산 15위, 진안 16위, 정읍 18위를 차지해 우수조직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주조공법인과 남원조공법인은 지난 2020년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농식품부의 인정을 받아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한편 '산지유통종합평가'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전국 통합마케팅조직 124개 조직(농협조직 96, 농업법인 28)을 규모화·전문화 등 9개 지표로 평가하며,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농산물 취급확대와, 공동선별회 육성 등 농업인 조직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북 13개 조공법인은 올해 총 672억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확보했으며, 조공법인 및 참여농협의 사업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미칠근의 자세로 조공법인 및 참여농협의 전문화와 사업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하고, 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올해 실시한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도내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우수조직을 휩쓸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예담채 특별판매전. 〈사진=전북농협 제공〉

남원농협,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등 추진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이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와 영농기술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에서는 관할 지역 내 7개 동 7개면 212개 영농회를 대상으로, 남원농협 농기계센터 직원들이 순회면서 트랙터, 경운기, 예취기 등 고장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리를 실시하고 농업인에게 간단한 자가 정비법, 안전관리 요령 교육도 1대1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비와 노동력은 절감하고 재배안정성은 높이며 병충해는 줄여주는 드문모심기 영농기술 보급을 하고, 올해부터 남원농협은 생산육묘 10만장 전체를 밀묘 모판으로 제작해 농가에게 보급, 밀묘 모판으로 50~60주 드문모심기를 실시해 벼의 수광태세 및 통기성을 높여 벼 도열병 등의 병충해를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인력부족 및 인건비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급등,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번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밀묘 공급에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농업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는 한편,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은 ㈜다온정보기술과 4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조직 도약 스마트농업 육성 동시에

전북농협-다온정보기술, 스마트팜 모델 구축 협약
농협 공선출하회 농가 10호 선정 시범사업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다온정보기술(대표이사 노기수)은 4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사업의 근간인 생산자조직의 한 단계 도약과 스마트농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기존 농협 공선출하회 조직의 단동 및 연동 시설하우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화·원격기술을 활용, 실시간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은 올해 농협 공선출하회 농가 중 딸기,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농가 10호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전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전북본부에 관재센터를 두고 참여농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온정보기술은 다수의 스마트팜 시공실적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 금차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팜 시공 시 효율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검증된 기자재의 사용, 원활한 사후관리(A/S),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공유 등으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스마트팜의 유리온실 등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먼저 떠올라 농가에서도 선뜻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소 적은 비용으로 영농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전북형 스마트팜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될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향후에는 전라북도 각 시군으로 확대시켜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

농식품부, 창업예정자 1409명0104독립경영 1년차 471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해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했으며, 총 3,451명이 지원해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중위소득 120% 이상 지원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2년 차 91명(4.5%), 3년 차 29명(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 2020년 65.7%, 2021년 67.6%에 이어 2022년 70.5%(전년 대비 2.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366명(68.3%)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해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후계농 중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 원 한도, 금리 2%)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이용 카드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예정자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에 청년농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해 지원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LX,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 모집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총 94명(기획경영직 9명, 국토정보직 77명, 무기계약직 8명)으로, 채용일정은 4일 모집공고, 11~20일 원서접수, 5월 7일 필기시험, 5월 30~31일 역량면접을 실시한다. 6월 15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LX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2014년 NCS(능력중심채용),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공정한 채용 시스템으로 주목을 모았으며,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등 편견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실제로 LX공사의 채용현황을 분석하면 2017년 블라인드 채용 도입 당시 비수도권 인재비율은 50%로 시작해 2021년에는 66%로 증가했고, 출신대학수도 다양해졌다.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지역인재채용 목표제가 도입 돼 힘입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직 내 다양성이 커졌고 직무 역량과 조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무에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과정도 마련했다. 특히 전북지역에 LX공사 입사와 관련되는 학과가 소수인 점을 감안해 '잡(JOB) 멘토링 사업', '오픈캠퍼스',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했으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합동으로 개최한 올해 오픈캠퍼스에서는 공간정보과정을 개설해 수요자 맞춤형 취업 교육을 제공했다. 전북혁신캠퍼스 공간정보과정에 참여한 정민혁 씨는 "공간정보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데이터라는 걸 알게 됐고, LX공사 취업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가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30%를 지난해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바 있다. /최대희 기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UP'

농진청, 올 전국 10곳서 시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00여만 톤 대비 38%를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실증연구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빠른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농진청이 개발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각 지역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벼 재배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로, 사업 대상지에는 논물 관리기술을 중심으로 ▲농경지 바이오차(Biochar) 투입 ▲논물 관리기술(자동물꼬) ▲논 이용 밭작물 재배 등 지역별로 적합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된다.

◇논물 관리기술

벼 재배기간 동안 물이 차있는 논에서는 온실가스인 메탄(CH4)이 생성돼 배출된다. 논물 관리기술은 논에서 벼를 재배할 때 계속해서 물을 채우지 않고 ▲중간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 관리를 통해 메탄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농경지 바이오차 투입

작물 재배 전 농경지 토양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토양에 탄소를 격리?저장할 수 있다. 바이오차 적용방법은 작물 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동시에 바이오차를 농경지 전면에 흩뿌린 다음 흙갈이(로터리)를 해 표토까지 균일하게 혼합하며, 토양개량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논 이용 밭작물 재배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면 토양에 공기가 공급되어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즉 벼를 재배할 때 담수상태인 논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원리를 반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농진청은 벼 적정생산 및 논의 경지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콩 단작, 봄감자+콩(2모작), 콩+밀(2모작), 감자+참깨+마늘(2년 3모작) 같은 다양한 재배 순서(28개 작부체계)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 기술을 활용한 자동 논물 관리를 위해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2021~2022년에 조성한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 19개소를 대상으로 각 개소마다 '디지털 영상 물꼬' 장치를 설치해 영상분석을 통한 논물 수위 측정·물높이 관리, 작물의 생육환경 진단, 탄소 배출량 측정·분석 같은 논물 관리와 데이터 수집·분석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와 저탄소 시범사업 연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 정병우 팀장은 "이번 시범사업과 실증연구가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빠른 현장 보급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저탄소 재배기술의 인지도 제고 및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기자

전북중기청, 주택 특별공급 후보자 모집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 대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반월동3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는 세움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8-3외 19필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6세대(확정추천 4세대+예비추천 2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